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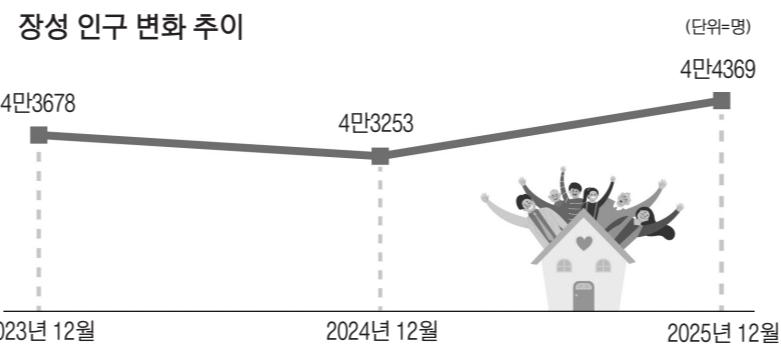
‘농촌의 기적’ 장성, 1년 새 인구 1116명 증가

**대규모 주거단지 효과…올해 첨단3지구 유입 기대
결혼·출산·청년·외국인 정책 병행…정주여건 강화**

인구 감소세가 지속되던 장성군이 지난 해 1000명 넘게 인구가 늘어나면서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26일 장성군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군 인구수는 4만4369명으로, 전년(4만 3253명) 대비 1116명 증가했다. 인구 증가는 장성읍에 조성된 793세대

규모 ‘대광로제비양’ 아파트 입주가 주요 요인으로, 현재까지 767세대 1776명이 전입하며 주거 수요와 생활 인구가 크게 늘었다. 이 같은 흐름은 일시적 현상에 그치지 않을 전망이다.

올 하반기부터 첨단3지구 광주연구개발



특구 주거단지 3729세대 입주가 예정되어 있어, 인구로 활성화하면 최소 8000명에서 최대 1만명까지 유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장성군에 사실상 새로운 읍 하나가 더해지는 규모다. 군은 인구 증가에 대비해 결혼·출산·육

아 지원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최대 400만원의 결혼축하금을 비롯해 신혼부부 건강검진, 임신 사전 건강관리, 출생기본수당,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등 생애주기별 지원책을 촘촘히 마련했다.

청년 유출을 막고 지역 정착을 위한 정책도 병행된다.

2월 청년센터를 개관해 취·창업 상담과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4월에는 장성 미식산업진흥원을 열어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외식 창업과 일자리 창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황룡전통시장 일원에는 청년상

가 조성사업도 추진 중이다. 외국인 주민 증가에 대응한 정책도 확대되고 있다.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건립, 지역특화형 비자사업, 다문화가족 교육·정책 지원 등을 통해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돋구고 있다.

김한종 장성군수는 “첨단3지구 입주와 광주·전남 통합 논의가 장성의 인구 증가를 더욱 가속화할 것이다”며 “정주여건 개선과 균형 잡힌 인구 정책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장성=이형범 기자 lhb6699@gwangnam.co.kr

나주, 기후변화 대응…‘나주배’ 경쟁력 지킨다

**내일 실무협의회 개최 예정…공동 대응 방안 모색
인증 품질보증제 추진·수학기 판정단 운영 등 논의**

나주시는 28일 배 산업의 현안과 기후변화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배 육성관련 기관 실무협의회를 개최한다.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기상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배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관련 기관과 협력 체계를 강화하며 나주배 경쟁력 확보에 나서기 위함이다.

이번 협의회는 기후변화로 인한 생산 불안정과 재배 환경 변화에 대응해 나주 배 산업의 안정적인 생산 기반을 구축하

고 고품질 배 생산과 유통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했다.

협의회에는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배연구센터, 나주배원예농업협동조합, 나주시 조합공동사업법인(APC), 나주시 등 배 산업과 관련된 주요 기관 실무진이 참석할 예정이다.

참석 기관들은 배 산업 현안과 현장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젊은과 고온 등 이상 기상 대응 방안, 시장 인증 품질보증제 추

진, 농가 컨설팅 및 수학기 판정단 운영, 연구 실증사업 추진 방향 등 분야별 역할 분담과 협력 방안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한다.

특히 최근 기후변화로 생산 여건이 악화하고 생산비 부담이 증가하는 상황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안정적인 생산

기반 조성과 고품질 배 생산을 위한 기술 지원, 유통 경쟁력 강화, 농가 소득 증대 방안 등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실제로 지난 2024년에는 지속된 폭염과 강한 일사로 인해 일소과와 밀증상 등 고온 장해가 발생해 피해가 커졌으며 지난 해에는 개화기 젊은으로 꽃눈이 고사하는

등 저온 피해가 이어져 배 재배 농가의 어려움이 기증된 바 있다.

아울러 이번 협의회에서는 꽃가루 수급 안정화 방안과 과수화상병, 흙성병 등 주요 병해충 대응, 조기 낙엽 등 생육기와 수학기 생리장애 대응 방안도 함께 논의 할 계획이다.

형남읍 나주시농업기술센터 소장은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기상은 배 산업 전반에 큰 위협 요인이 되고 있다”며 “이번 실무협의회를 통해 현장 중심의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관계 기관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나주배 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 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나주=조현천 기자 pose007@



“100세까지 건강하게” 고흥군 백세청춘 운동교실이 어르신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백세청춘 운동교실은 건강 체조, 요가, 라인댄스 등 신체활동, 영양·비만 관리 교육, 금연·절주 등 통합 건강교육으로 구성됐으며, 전문 강사와 보건소 직원이 함께 참여해 프로그램의 전문성과 효과를 높이고 있다.

사진제공=고흥군

**함평, 참전유공자 예우 강화
배우자 ‘참전명예수당’ 지급**

함평군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참전유공자의 공적을 기리고 그 유가족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한 ‘참전명예수당’을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지급한다.

별세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지금 되는 참전명예수당은 월 5만원씩 분기마다 지급될 예정이다.

군은 지금까지 참전유공자 본인에게만 수당을 지급해 왔으나, 참전유공자 사망 시 보훈 자격이 승격되면서 배우자에게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를 고려했다.

군은 관련 조례를 개정해 올해 1월부터 지금 대상을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까지 확대했다. 참전명예수당 신청은 주 소지 읍·면사무소 주민복지팀에서 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참전유공자의 사망 이후에도 그 숭고한 희생과 헌신을 지속적으로 예우하고 유가족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참전명예수당 지급을 추진했

진도, 정주여건 개선…주민숙원 조기 추진

내달까지 생활 밀집사업 244건 67억 규모 발주

진도군은 주민 생활환경을 개선해 정주 여건을 강화하고자 지난해 11월부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대한 현장 조사 후 실

시설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8월부터 각 읍·면 사무소에서 주민숙원사업 수요 조사를 시작했고, 11월부터 진설과에서 현장 조사와 실시설계

를 병행 추진해 사업의 추진 속도를 높여 올해 2월 안에 조기 발주하는 것을 목표로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이번 주민숙원사업을 통해 진도군은 마을안길 정비, 농로 개설과 포장, 배수로와 개천 정비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사업을

총 244건, 67억 원 규모의 사업

을 조기에 발주할 계획이다.

특히 군은 실시설계 단계에서부터 주민 숙원사업 대상지 전체를 직접 현장 방문해 이장과 주민들 의견을 적극 수렴했고,

현장 여건을 반영한 합리적인 설계를 통

해 공사 품질의 향상과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를 동시에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 한다.

군은 총 244건 중 현재 149건의 공사를

발주했고 2월 안에 남은 95건을 발주해 농

번기 전에 전체 공사를 완료할 방침이다.

진도=서석진 기자 ss9399@

**담양, 3대 가족 함께 살면 효도수당 지급
설·추석 각 20만원…세대 간 화합 기대**

담양군이 80세 이상 어르신을 부양하는 3대 이상 가정의 부양자에게 명절마다 설과 추석 명절에 각각 20만원씩을 지급하는 ‘효도 수당’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지원 대상은 1946년 12월 31일 이전 출

으로, 직계 존·비속 기준 3대 이상이 함께 살아야 한다. 신청일 기준 해당 가구원 모두가 담양군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수당은 부양자 명의 계좌로 입금되고 별도의 사용 제한은 없다.

올해 설 명절 수당을 새로 받으려는 가

영광, 상사화 모시 고도화 추진

품종 특성 관리·재래종 간신

영광군은 2026년을 지역 자생식물 연구의 도약기로 설정하고, 상사화와 모시를 중심으로 한 유전자원 보전·증식·활용 연구를 통합적으로 추진한다.

군은 농업생명자원관리기관으로서 모시 보유 유전자원 266점과 재래종으로 관리해 그간 모시 유전자원 관리와 신品种 개발을 통해 산업 기반을 구축해 왔다. 상사화에 대해서도 조직배양과 증식 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으며, 올해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연구의 표준화와 현장 적용성 강화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상사화 분야에서는 국내 상사화 자생자원 7종을 포함, 진노랑상사화(멸종위기 야생생물 II급)를 중심으로 조직배양과 실증화 운영을 안정화하고, 이상기상에 따른 개화 지역에 대응하기 위한 개화

인정화 및 개화기간 연장 실증 연구를 추진한다.

모시 분야에서는 기존 유전자원 관리 체계를 바탕으로 품종 특성 관리와 재래종 품종 간신을 지속 추진하고, 표준 재배

·관리 기술을 현장에 적용해 모시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군은 연구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연구의 현장성과 실용성을 높이고, 이를 연구 현장과 실증화 운영에 반영함으로써 연구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상사화와 모시 연구는 지역 유전자원을 지키고 미래자원으로 키워가는 과정이다”며 “축적된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영광군이 자생식물 연구 분야에 서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영광=정규필 기자 ykjp98@gwangnam.co.kr

영광군은 2026년을 지역 자생식물 연구의 도약기로 설정하고, 상사화와 모시를 중심으로 한 유전자원 보전·증식·활용 연구를 통합적으로 추진한다.

군은 농업생명자원관리기관으로서 모시 보유 유전자원 266점과 재래종으로 관리해 그간 모시 유전자원 관리와 신品种 개발을 통해 산업 기반을 구축해 왔다. 상사화에 대해서도 조직배양과 증식 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으며, 올해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연구의 표준화와 현장 적용성 강화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상사화 분야에서는 국내 상사화 자생자원 7종을 포함, 진노랑상사화(멸종위기 야생생물 II급)를 중심으로 조직배양과 실증화 운영을 안정화하고, 이상기상에 따른 개화 지역에 대응하기 위한 개화

인정화 및 개화기간 연장 실증 연구를 추진한다.

모시 분야에서는 기존 유전자원 관리 체계를 바탕으로 품종 특성 관리와 재래종 품종 간신을 지속 추진하고, 표준 재배

·관리 기술을 현장에 적용해 모시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군은 연구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연구의 현장성과 실용성을 높이고, 이를 연구 현장과 실증화 운영에 반영함으로써 연구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상사화와 모시 연구는 지역 유전자원을 지키고 미래자원으로 키워가는 과정이다”며 “축적된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영광군이 자생식물 연구 분야에 서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영광=정규필 기자 ykjp98@gwangnam.co.kr